

日 대지진 일주일... 피해규모 확인 불가

손학규, 강원지사 보선 '올인'

이달들어 네번째 방문... 민주 "엄기영, 영혼 팔아 넘긴 배신자"

사망·실종자 계속 증가... 최대 수만명 사망 추산 피폭 190명 확인... 재산 피해 고베대지진의 1.6배

일본 사상 최대 규모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열도 동북부를 휩쓸고 17일로 1주일째를 맞았지만 이번 대참사로 인한 피해규모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수만명 추산 인명 피해=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17일 오전 0시 현재 사망·실종자는 총 1만4650명으로 집계됐다. 또 도호쿠 지역 8개현의 2100곳 이상에서 피난소 생활을 하고 있는 피난민은 약 41만6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경우 피해가 가장 컸던 미야기(宮城)현에서 2444명, 이와테(岩手)현에서 1482명, 후쿠시마(福島)현에서 533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 수는 이와테현에서 3318명, 후쿠시마현에서 2919명, 미야기현에서 2362명 등이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공식 집계일 뿐이다. 쓰나미로 인해 순식간에 사망한 후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연락두절된 행방불명자가 아직 수만명에 이르러 사망자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에서는 아직도 8000여명 주민들에 대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피해가 큰 지역인 이와테현 리쿠젠타카타 역시 1만7000여명의 소식이 두절된 상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실종자만 표현을 거의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곤 했다. 행방불명자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감안해 한때 일본 일부 언론은 사망자가 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가장 보수적인 일본 경찰청 통계에서만 이미 사망자와 실종자가 1만명

을 넘어선 것도 엄청난 피해다. 이는 지난 1995년 고베 대지진의 공식 집계 수치를 넘어선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수질 오염에 따른 질병확산도 걱정된다. 게다가 방사능 누출에 따른 피폭 피해는 더욱 우려된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 현재까지 190명이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고, 앞으로 그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피해, 고베대지진 1.6배 달해=일본의 지진 피해가 차츰 드러나면서 재산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아직 정확한 피해상황을 집계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1995년 고베 대지진보다 1.6배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며 있다.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재산피해 규모는 최소 1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재난관리업체 EQECAT), 심지어 2000달러(골드만삭스), 2700억달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00억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긍정적 신호도 있다. 이번 지진 피해 복구 노력으로 일본 경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면 피해액은 최대 27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실제로 도쿄와 혼다, 닛산, 소니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및 전자업체들은 지진 이후 일부 조업을 중단했고, 원전과 화력발전소, 정유시설도 일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지진으로 인해 전부, 또는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건물만 최소 2만채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00억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긍정적 신호도 있다. 이번 지진 피해 복구 노력으로 일본 경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4·27 강원지사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강원 지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당 차원에서는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엄기영 전 MBC 사장, 박진호 전 MBC 사장, 박진호 전 MBC 사장의 본선 진출에 대비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손 대표는 17일 원주를 방문, 시민토론회와 주민좌담회를 갖고 하룻밤을 머문 뒤 18일 현지에서 최고위원회를 연다.

손 대표의 강원행은 이달 들어서만 2일 춘천, 10일 홍천, 15일 강릉에 이어 네 번째, 여의도 북구 이전 춘천에서 2년여 동안 집거했던 손 대표는 '제2의 고향'적인 이곳에서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다시 한 번 뚝심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최문순 의원과 조일현, 이화영 전 의원 등 3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하는 후보 경선을 통해 대대적 흥행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두 차례의 TV 토론회와 3회의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거쳐 28~30일 경선을 실시, 31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후보가 정해지면 이광재 전 지사도 측면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광우병 파동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많이 흥행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엄기영 전 사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

회의에서 "엄 전 사장은 자신이 일생을 바쳐 MBC 후배들에게 망언을 하면서 영혼까지 팔아 넘기는 배신자의 길을 가고 있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신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강원도의 힘이 뜻대와 양식, 양심이 없는 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원지사 보궐선거는 이번 재보궐 선거의 핵"이라며 "이곳에서의 승리가 전체 재보선 성적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경쟁전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엄 전 사장은 자신이 일생을 바쳐 MBC 후배들에게 망언을 하면서 영혼까지 팔아 넘기는 배신자의 길을 가고 있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신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강원도의 힘이 뜻대와 양식, 양심이 없는 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원지사 보궐선거는 이번 재보궐 선거의 핵"이라며 "이곳에서의 승리가 전체 재보선 성적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경쟁전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긴장 속 오염감지기 통과 일본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17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고정식 방사능 오염감지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날 오후 후쿠시마~인천 아시아나 직항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남성에게서는 기준치인 1μSv(마이크로시버트)를 넘는 방사선이 확인되기도 했다.

강원지사·국회의원 3곳 재보선 비용 150억원

강원 113억... 보선 최대

다음달 27일 실시되는 강원지사 및 국회의원 선거 3곳의 재보궐 선거 관리비용이 모두 150억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지사 보궐선거의 선거관리비용은 후보들에게 지급되는 선거운동 보전비용과 투표·개표 관리비용, 위법행위 예방활동비용 등을 포함해 113억4700만원이다.

단일 선거구로는 지난 2004년 6월 김혁규 전 지사의 사퇴로 실시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비용 84억6800만 원을 넘어서는 재보선 사상 최대 금액이다.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경남 김해시, 순천 등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의 보궐 선거비용은 총 36억7900만원이다.

언론 장악·투기 의혹 공방 치열

최시중 청문회... 아권, 아들 병역면제도 거론 최 후보자 "종편 불공정 선정 입증 땀 사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언론장악, 투기 의혹, 종편 불공정 선정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는 방송 장악의 종결자"라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의 '멘토'로서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의 표현 자유를 살쳐줬다"며 자신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언론보도와 관련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언론중재조정 신청건수는 752건(연 150건)에 달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172건(연 57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측은 최

위원장 아들의 강남 아파트 전세자금과 며느리의 식당 창업비용 출처, 장남이 고교 3학년이던 1988년 신체검사와 및 체력시험에서 상위 관정을 받았음에도 이듬해 병역 면제처분을 받았으며 최 후보자의 총남 아산, 성남 분당 부동산 투기 등 '7대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불가론을 펼쳤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 등은 이미 2008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된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종편 채널A의 2대 주주의 이사회결의서를 종편 신청 접수 때는 물론 심사종료 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감정을 주어야 할 때도 주지 않았다"

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또 "종편 심사가 부실했고 특정 언론사를 밀어주기 위한 심사라는 게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고 압박했으며 이에 최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종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민주당 간사민 김재운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3년간 최 위원장의 업무를 검증하는 자리임에도 여야간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를 하게 됐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임기 4년인 국회의원도 한 번 더 허락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검증할 증인 한 명 없이 청문회가 이뤄진 것은 여당 간사의 책임이 크다"고 한성교 한나라당 간사를 비난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로 의혹 풀어야"

박지원·이정희·이종걸 촉구

야당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텔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자살 전에 남겼다는 편지가 허위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주장과 관련, "국과수의 발표가 있자마자 경찰에서 '재수사는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과수 발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장자연씨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세상을 등졌는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재수사를 철저하게 해 국민 의혹이 불식되도록 해야 존경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6일 "편지가 가짜라고 해도 2년 전 경찰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장씨가 자살까지 찍어 남긴 문서에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연예계 성상납 관행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접대를 받은 유력인사들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경찰은 이번 편지 논란을 계기로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종편 채널A의 2대 주주의 이사회결의서를 종편 신청 접수 때는 물론 심사종료 때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감정을 주어야 할 때도 주지 않았다"

식당용 중고품
- 매매전문 -

입소용품 **주방용품**

광주·전남, 북 전지역 출장환경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중고매장

직통 011-9430-1698

본점 062) 521-6677
북구점 062) 524-3377
첨단점 062) 945-8778

정품! 정량!! 난방유
SK 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핸드럼당 4천원~6천원 할인
▶ OK캐쉬백적립

내부세차 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지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 우측
062-224-5189
011-666-7899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